# 메리츠 금융 Daily

2020. 3. 26

meritz 메리츠증권

은행/지주 Analyst 은경완
02. 6454-4870
kw.eun@meritz.co.kr

보험/증권 Analyst 김고은
02. 6454-4871
goenkim@meritz.co.kr

## News

### 서둘러 발표한 30兆‥뒷수습 떠안은 금융권 '눈치싸움' — 이데일리

급박하게 판을 깔았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조율 중...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넣었다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부담스러운 눈치가 역력
금융권 관계자, "일단 금융회사의 덩치에 따라 배분한다고 했지만, 구체적인 숫자는 더 협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"

### 시중은행 해외영업 안정세…현지화지표 상승 — 뉴데일리

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총자산은 1,336억9,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88억8,000만 달러 증가...국내은행 총자산의 5.7%에 달하는 수준
시중은행의 해외영업이 이제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지만, 지금까지 성적으론 긍정적이란 평가

###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, 주총서 연임 확정…2기 체제 숙제 산적 — 연합뉴스

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공식으로 연임에 성공...중소 · 소상공인은 물론 중견 · 대기업까지 포함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자고 주문
법적 소송과는 별개로 손 회장이 금융당국과 계속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은 금융회사 경영하는데 커다란 부담...인허가 문제에서 금융당국이 '키'를 쥐고 있어

### 코로나發 자영업대출 리스크 확대…담보비율 낮은 하나銀 '끙끙' — 건설경제신문

코로나19로 인해 내수 소비가 급감하면서, 지난해 대폭 늘어났던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…
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담보비율은 평균 86.3%...하나은행의 담보비율은 평균에 못 미치는 76%...

### 맥없이 무너진 보험株···보험사 CEO 자사주 매입 러시 — 더팩트

주가 급락을 방어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...일각에서는 주가가 반 토막 난 지금이 저가매수의 적기라는 분석도
자사주 매입은 주주친화 경영 실천이라는 선언적 효과와 함께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성격이 짙어

### 미래에셋대우, 최현만 수석부회장 재선임..1,821억 배당 결정 — 파이낸셜뉴스

미래에셋대우,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보통주 260원과 우선주 286원 등 총 1,821억원(배당성향 27.4%)을 배당하기로 결정
최현만 수석부회장, "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객동맹을 바탕으로 주주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"

### 개미 매수에 주가 이틀째 급등…거래대금 역대 최대 — 연합뉴스

코스피 · 코스닥 각각 5% 넘게 올라 1,700, 500선 회복...외국인은 15일째 순매도…코스피 누적 순매도 10조 넘어
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총 거래대금은 22조2천989억원으로 1996년 코스닥시장이 개장한 이래 최대를 기록…

### '라임 사태' 신한금투 전 임원 긴급체포…검사 2명 추가 파견 — 연합뉴스

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을 이날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져...
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(TRS · 총수익스와프)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

**Compliance Notice**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